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이준호

전화 02-530-4780 / 팩스 02-536-5410

보도자료

2025. 2. 12.(수)

제 목

국내 최대 피해 야기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일명 '목사') 구속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로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의 방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예외적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때,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제12조 제1항 제1호)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 조사제1부장)을 구성하여 「텔레그램 '자경단' 사건」을 수사한 결과,
 - 총책 김녹완(일명 '목사')이 자신은 '목사', 직원들에게는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하여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한 후, 성착취물·불법촬영물·허위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미성년자를 가학적·변태적 수법으로 강간하면서 이를 촬영하는 등 추가 범행을 하고,
 -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후 이를 직원을 통해 구글기프트 코드 등으로 현금화하거나 순차 송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 하였음을 규명하여, 금일(2. 12.) '자경단'의 총책 김녹완을 구속기소 하였음
- 또한, '자경단' 피해자 234명에 대해 ① 신체적·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②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③ 개명 등을 통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지원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앞으로도 '자경단 특별수사팀'은 김녹완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자경단' 조직 범행에 대하여는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끝까지 추적·엄단할 예정임

I 피고인 및 주요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 김녹완, 회사원 [33세, 구속, 일명 '목사']

2 주요 공소사실 요지

조직원들과 공동 범행

■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 '20. 5. ~ '25.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불법촬영물·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촬영물 이용 협박 또는 강요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 후 총책임 '목사'로 활동함

■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함
- 성인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하여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 7명에 대한 불법촬영물을 유포함

■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 SNS에 음란사진 및 신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46명에게 반성문, 학생증 사진,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음
- 위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31명에게 일상보고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남성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유사강간하면서 촬영함

■ 협박

- 신상정보나 나체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 16명을 협박함

■ 허위영상물 배포 및 신상정보 공개

- 피해자 47명의 허위영상물을 배포하고, 피해자 75명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함

김녹완 단독 범행

■ 아동·청소년 강간

- 자신이 섭외한 남성(소위 '오프남')과 성관계 하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위 '오프남'으로 행세하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9명을 강간하고, 그 중 3명에게 상해를 가함

■ 강간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오프남'으로 행세하며 성인 여성인 피해자 1명을 2회 강간함

■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제작·소지

- 위 강간 과정을 362회에 걸쳐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 758개를 소지함

■ 공갈

-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만 원을 갈취함

검찰 추가 인지 범행

■ 성착취물제작 및 촬영물 이용 강요

- 피해자가 SNS에 음란사진을 게재한 사실,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나체사진, 반성문 등을 전송받음
-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5만 원을 자경단 조직원(일명 '전도사')에게 송금하게 함

■ 공갈

-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93만 원을 갈취함

■ 범죄수익 세탁

-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자경단 조직원을 통해 구글기프트 코드로 바꾸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여 자금 세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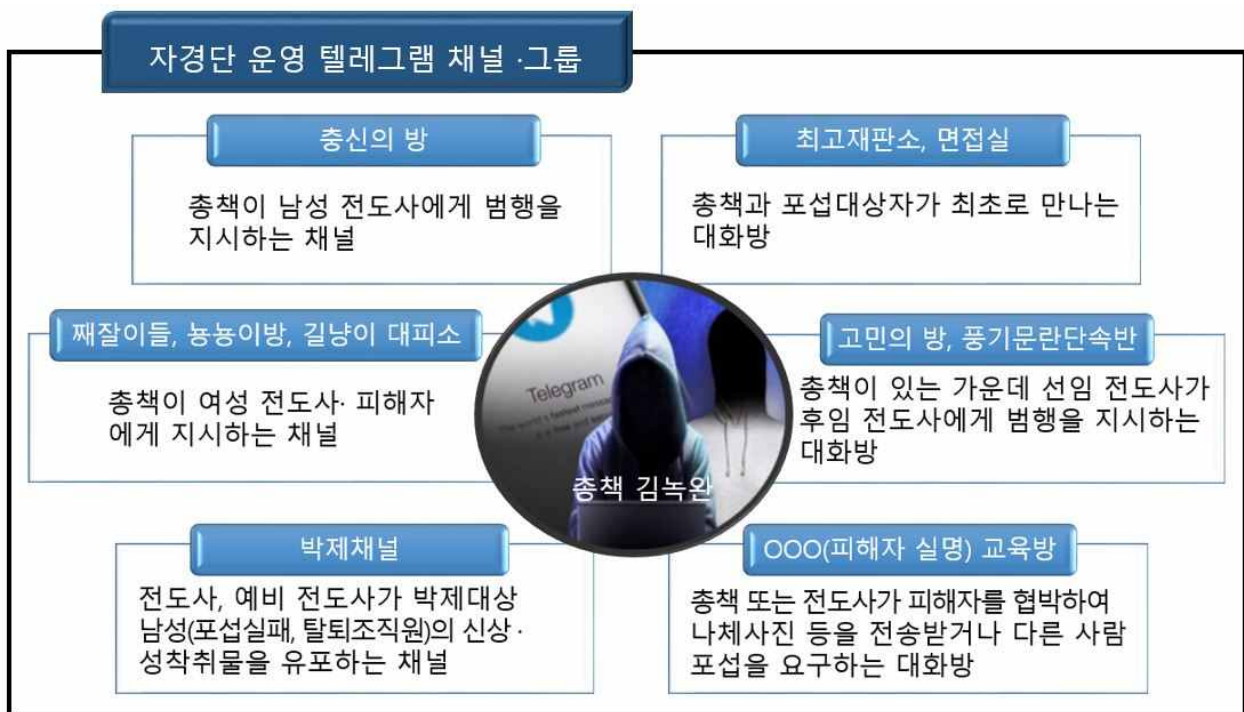
1 '자경단' 조직도



2 '자경단' 범행수법

남성 대상자	여성 대상자
'야동방',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면 경찰이 아님을 인증하라며 합성물, 지인 인적사항을 요구	'섹트(SNS에 신체사진을 게재하는 것)', '조건만남' 등을 하는 여성에게 접근하여 "신상정보가 털리고 있으니 텔레그램에서 관리자를 만나봐라"라며 텔레그램 가입 및 목사와 연결 유도
합성물 등을 전송받으면, 텔레그램 '연락처 추가'를 하도록 하여 전화번호 확보, 카톡 친구 추가하여 프로필 사진 등 확보	텔레그램 '연락처 추가'를 하도록 하여 전화번호 확보, 카톡 친구 추가하여 프로필 사진 등 확보
성범죄자이니 신상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반성문, 신분증, 나체사진·나체영상 요구	'섹트' 또는 '조건만남' 사실 및 신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반성문, 신분증, 나체 사진·나체영상 요구
위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10명을 데려오면 '졸업(나체사진 등을 삭제하고 풀어줌)'시켜주겠다고 전도사로 섭외	위 사진·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더욱 수위가 높은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강간, 유사강간 등을 가함

- 총책 김녹완은 텔레그램을 통해 물색한 성범죄자들과 함께 ① SNS를 통해 음란사진 등을 게재하는 여성, ② 지인의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하는 남성 등의 신상정보를 알아내어 협박하고, 강간·유사강간·강요행위를 하거나 성착취물 제작하여 다시 이를 빌미로 조직원으로 포섭함
- 총책 김녹완은 자신은 ‘목사’, 조직원들에게는 ‘전도사’, ‘예비전도사’ 등의 직위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음



- 총책 김녹완은 피해자를 직접 포섭하거나 전도사들이 포섭한 사람을 협박하여 성착취물 등을 전송받고, 조직 이탈시 ‘박제채널’을 생성하여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일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는 노예졸업을 위해 ‘오프남’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하며 자신이 ‘오프남’으로 1인 2역을 하면서 이들을 엽기적 방법으로 강간하고, 이를 촬영함
- ‘전도사’는 포섭한 사람을 목사에게 연결해주고, 협박, 성착취물 제작, 유사강간, 박제채널 생성 및 홍보 등 목사가 지시한 사항 일체를 수행하고, ‘예비 전도사’는 전도사들로부터 피해자 포섭 방법 등을 교육 받은 후 포섭 대상자를 물색함

- 총책 김녹완은 피해자들을 온전히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기상보고’ 등 매일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면서, 지시 불응 시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대소변 먹기, 나체사진 촬영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일명 ‘노예’ 상태로 만듦

III

수사 경과

- '23. 12. 서울구로서, 피해자 1명 고소장 접수
- '25. 1. 15.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총책 김녹완 체포

▶ 경찰은 텔레그램社 등 상대로 목사 등 ‘자경단 조직원’ 특정을 위한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총책인 김녹완을 특정

※ 텔레그램社 최초 수사 협력 사례

- '25. 1. 24. 서울중앙지검, 김녹완 구속사건 송치 접수
- '25. 2. 3.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 구성

▶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소속 검사 4명 및 수사관 5명을 팀원으로 특별수사팀 구성

- '25. 2. 6. 서울중앙지검, 김녹완 추가 범행 인지
- '25. 2. 8.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김녹완 신상정보 공개
- '25. 2. 12. 서울중앙지검, 김녹완 구속 기소

IV

수사 의의 및 향후 계획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총책 김녹완 구속사건 송치 직후 ‘자경단 특별 수사팀’을 편성하여, 잔혹한 수법으로 성착취를 한 범죄집단 ‘자경단’의 총책인 김녹완의 추가 성착취물 제작, 공갈, 범죄수익은닉 범행을 밝혀냄

- 또한, ‘박사방’ 조직의 3배에 달하는 ‘자경단’ 피해자 234명에 대하여
 - ① 신체·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②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③ 개명 등을 통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지원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함
-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급증하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4명에서 8명으로 확대 지정함
- 앞으로도 ‘자경단 특별수사팀’은 김녹완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인격을 말살하는 엽기적 범행을 저지른 ‘자경단’ 조직 범행에 대하여는 전국에 산재된 ‘자경단’ 사건을 집중 송치받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끝까지 추적·엄단할 예정임☑